

# 공정위, NXP·ADI 제재절차 착수 “국내 유통사 조 단위 불공정 거래”

독점 유통권 강제 등 갑질 혐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의견 제시 “반도체 분야 공정 거래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자동차 및 산업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NXP(네덜란드)와 ADI(미국)의 ‘조 단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유통사에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강제하거나 마진율과 재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갑질을 벌여온 혐의다.

두 회사의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만 4조 원을 웃돌아, 향후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8일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 측에도 각각 송부해 사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국내 유통사를 상대로 이른바 ‘Ship&Debit(이하 S&D)’이라는 독

특한 거래방식을 운영해 왔다. 이는 유통사가 본사가 정한 제품별 ‘표준 공급가격’으로 제품을 먼저 구입한 뒤,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을 요청해 승인을 받으면 사후에 차액(표준 공급가격-실제 공급가격)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국내 1위 사업자인 NXP는 최소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구조를 악용해 심각한 구속조건부 거래 및 경영간섭을 해왔다. 자신과 거래하는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고객)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그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했고,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했다.

글로벌 아날로그 집적회로 시장 2위인 ADI 역시 최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해 뒀고, 동시에 유통사들의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제한행위, 경영간섭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위반

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관이 산정한 두 회사의 행위별 관련 매출액은 NXP의 경우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관련 약 8.8억 달러(약 1.3조 원), ▲경영간섭 행위 관련 약 6.6억 달러(약 1조 원), ADI는 ▲경영간섭 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각각 약 8억 달러(약 1.2조 원) 씩이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며 “피심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유통사의 거래처 및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유통사간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모습.

/농진청

## 농진청, 농업위성 활용 정보 생산 돌입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 성공

농촌진흥청이 농업위성을 활용한 정보 생산에 돌입했다. 농진청은 우주항공청, 산림청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림위성)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농업위성정보 생산과 활용 체계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국내 최초의 농업·산림 분야 국가 관측위성으로 전국 농경지와 농작물을 3일 주기로 관측한다. 이를 통해 농경지 이용 변화와 농작물 재배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해외 위성 의존도를 낮춰 우리 농업에 특화된 위성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은 위성영상에 자체 축적한 AI 분석기술과 기상·공간·현장 정보의 융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배면적, 생육

수량, 병해충, 농업재해, 토양수분 등 총 51종의 농업위성정보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된 정보는 주요 농작물 작황 분석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와 공익직불 이행점검, 침수·도복 등 농업재해 대응, 농업환경 분석 등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농진청은 지난해 ‘농업위성센터’를 신설해 위성 운영과 농업관측 정보 활용 연구를 전담해 왔다. 앞으로 현장 수요에 맞춘 농업위성정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위성 발사로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 특화 국가 위성을 확보하고 상시 농업관측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장이 필요로 하는 농업위성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후속 위성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

기후부 한전과 전력공급 방안 논의 지자체·관계부처 협조 체제 가동

광주 군공항으로 입지가 확정된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오는 2030년까지 전력 인프라가 조기 구축된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성패가 신속한 인프라 확보에 달린 만큼, 정부와 한국전력은 공용망과 산단을 잇는 공급 선로를 최대한 앞당겨 첨단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후 이호현 제2차관이 세종청사에서 한전과 회의를 열고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월요일(6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입지가 광주 군공항으로 본격 확정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기후부는 산단 가동 목표에 맞춰 2030년까지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 공용망과 산단을 연결하는 신규 공급 선로의 조기 구축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 체제도 긴밀히 가동한다.

한전은 전사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대규모 전력망이 필요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김재균

전력계통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메가 프로젝트 전력망 조기건설 추진TF’를 신설했다. TF는 시공 및 조달 방식의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 공장을 가동해 전력이 필요한 시점보다 앞서 전력공급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기 전력 공급 대책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글로벌 무탄소 첨단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전력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전폭 지원되면서 향후 국내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첨단 반도체 공장의 핵심 경쟁력은 안정적인 신속한 인프라 확보에 있다”며 “반도체 산단이 호남권의 풍부한 무탄소 전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산업과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이동식에어컨 절반, 설정온도 도달 못 해”

소비자원 창문틈새 마감 부실 영향

설치 기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1인 가구에 인기가 높은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상당수가 장시간 켜두어도 설정 온도까지 실내 온도를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의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6개 제품(5~8평형, 2025년 출시작)을 대상으로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단열재 보강 없이 제품을 24℃ 강풍으로 작동시켜 실내 온도(35℃)를 24℃까지 낮추는 실험 결과, LG전자 제품이 26분대로 가장 빨라 ‘우수’했고 이파람 제품은 36분대로 ‘양호’했다. 반면 보국전자, 웰템, 한일전기, 플릭스 등 나머지 4개 제품은 장시간 작동 후에도 24℃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유는 창문 틈새 마감 부실이었다. LG전자를 제외한 5개 제품은 창문 틈새를

막는 단열재가 부족해 외부의 더운 공기가 실내로 유입됐다. 소비자원이 단열재를 임의 보강 후 재실험하자 온도가 내려가지 않던 4개 제품도 41~58분 만에 24℃에 도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부실 업체들에 부속품 무상 제공을 권고했으며, 롯데하이마트와 웰템은 이를 수용해 단열재 등을 무상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정 온도 유지 능력을 보는 ‘온도 편차’ 시험에서는 제품별로 최대 2.1℃까지 차이가났으며, LG전자와 이파람 제품이 편차가 작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작동시 소음은 53dB(A)로 일반벽걸이형 에어컨보다 약 9dB(A) 높았다. 이는 ‘교실 내부’ 수준의 소음이다. 제품별로는 LG전자 제품이 46dB(A)로 가장 조용했다. 월간 전기요금은 전 제품이 3만 8000원~4만 2000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1등급인 LG전자와 이파람 제품의 전력 효율이 높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한전, 경영 정상화 결실... 포브스 글로벌 기업 순위 급등

3년만에 428계단 수직 상승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유례없는 재무위기를 겪었던 암흑기를 지나, 3년 만에 극적인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며 세계 무대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고강도 자구노력과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순위를 400계단 이상 끌어올리는 ‘수직 상승’을 기록했다.

8일 한전에 따르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2026년 ‘포브



스 글로벌 2000' 순위에서 종합 319위,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 중에서는 13위를 기록했다. 대규모 적자로 순위가 747위까지 추락

했던 2023년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428계단을 뛰어오른 극적인 반전이다. 이 같은 도약의 발판은 전방위적인 고강도 경영 혁신에 있었다. 한전은 지난 2022년 원자재 가격 폭등 여파로 32.7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임직원 전원이 동참한 비상경영과 자구노력을 통해 2025년 13.5조 원의 흑자를 달성, 2022년 대비 영업이익을 무려 46.2조 원이나 개선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은 “이번 순위 상승은 전국 각지에서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헌신해 준 전 임직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번 성과를 끝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글로벌 최고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한국가스공사, 홍의락 신임사장 내정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역임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내정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오는 23일 대구 동구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홍 전 의원의 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



하게 되며, 사장직 임기는 3년이다.

홍 내정자는 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남부권 경제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